“불교발전 위한 기백” 대불련동문들의 외침

대불련총동문회, 제14회 전국동문회 성료

“불교발전과 대불련 및 대불련총동문회의 발전,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언제나 기백을 잃지 않는 청년붓다가 되겠습니다.”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백효흠) 2016년 제14회 전국동문대회가 ‘열어온 50년 · 열어갈 50년, 대불련 지리산을 품다’ 주제로 8월 13~14일 지리산 블루썬 리조트, 화엄사, 지리산 일원서 6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번 동문대회에서는 지리산 노고단 고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교발전과 대불련 및 대불련총동문회의 발전,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했으며, 박태동 前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종주팀은 33km를 걸어 천왕봉 정상에 발원문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대불련 동문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열어갈 50년’의 비전을 공유하고, 문화행사와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소통하고 단합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입재식에서 백효흠 대불련총동문회장은 “우리 스스로가 젊은 불자육성과 지역포교에 앞장서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 남북 간 대치 속에 긴장된 동북아 정세 등 혼돈과 불안이 엉켜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때 주위의 공감과 후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훈 광주전남지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리산은 동문회가 열어갈 50년을 위한 지혜의 장소임이 틀림없다”며 “대불련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한 만큼 우리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희망의 싹을 틔워나가는 건강한 불제자의 발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축사서 “불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대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전국

8월 13~14일 지리산 일원서
600여 사부대중 참가해 붐벼
문화행사 · 어울림마당 소통하고
대불련 활성화 위한 결의 다져

각지로 비춰질 것을 의심치 않는다”며 “화엄사도 지난해 순천대에 불교학생회를 창립해 청년불자의 신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타 스님(행복마을 이사장)은 “팔만대장경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나, 대원, 수심, 화합, 작선이다”며 “없는 나는 우리 모두의 행복해탈을 위해 안으로 수심 잘하여 마음천국을 이루고, 밖으로 화합 잘하여 관계천국 이루며, 나아가 작선 잘하여 세상천국을 이뤄야 한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거듭 자기를 관리하면서 완벽한 자유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수행이고 수심이다. 행복해탈을 위해 수심하다보니 옆에 사람이 있어 화합한다. 행동할 일이 있으니 작선이라는 것이다. 그것이면 인생 전부다”고 법문했다.


8월 14일 지리산에 오른 대불련총동문회원들이 대불련 활성화를 다짐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이어 올해 제정된 ‘자랑스런 대불련인상’ 수여식이 열렸다. 진리의 벗(수행 · 연구 · 포교 · 호법) 분야에 전재성 빠알리어성전협회장(서울대 73학번), 진리의 얼(사회업적) 분야에 국회의원인 강창일 前 정각회장(서울대 72학번), 진리의 빛(봉사 · 기부) 분야에 김연호 진주동물병원장(경상대 72학번)이 수상했다.

감사패는 최승태 前 강원지부장이 받았으며, 공로상은 故 주영배 부산지부장, 특별상은 이순규 병원장(전남대 59학번)이 수상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화엄사와 구례군에 각각 자비의 쌀 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사찰 관람과 토크쇼,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블루썬 리조트서 열린 토크쇼는 ‘지리산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손님 법인 스님(일지암)과 김선우 작가가 출연했으며, 가수 박양희 씨가 노래했다. 저녁공양 후 열린 문화공연은 야외무대에서 국악공연, 어울림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올해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지리산 등반은 다음날 아침에 진행됐다. 김연호 진주동물병원장의 신행발표에 이어 전명철 수석부회장의 총동문회 50주년 기념사업 발표 후 지리산 성삼재로 이동해 노고단 고개에서 산정 이벤트로 대불련 활성화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夜行,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

군산 동국사, 문화유산 축제서
가곡 · 시극 음악회로 재해석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 동국사 등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한 전북 군산에서 한여름 밤의 축제가 펼쳐졌다.

문화재청과 군산시는 8월 13~14일 ‘군산야행,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 아래 동국사와 근대역사박물관이 밀집해 있는 원도심서 야로 · 야사 · 야설 · 야경 · 야식 · 야숙 등 7가지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거리퍼레이드로 막을 연 이날 축제는 동국사, 근대역사박물관, 신흥동 일본식가옥, (구)군산세관 등 17개소의 근대문화유산에 조명을 설치하고, 동국사 산사음악회 등 10개의 문화공연이 열렸다.



동국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가곡 · 시극을 재해석한 음악회.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는 입구의 동국사 가는 길에 전통등을 설치하고 대웅전과 요사채 주변에 조명을 설치해 관람객을 맞았다. 문화유산해설사가 상시 배치돼 동국사 창건 배경과 일제강점기 군산지역 수탈의 아픈 역사를 되새겼다.

동국사와 근대역사박물관에 이르는 2km구간은 근대문화유산이 새겨진 등불이 불을 밝히는 등불거리가 조성됐다. 또 동국사 산사음악회 ‘한여름 밤, 문화유산이 숨 쉬는 등불거리를 거닐다’ 스탬프 투어, 3개의 플리마켓 테마 프로그램과 ‘근대문화유산을 걷다’ 등 11개의 체험프로그램 등 총 41개의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에게 선보였다.

동국사는 일제강점기의 가곡과 시극을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구성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동국사 합창단 공연과 전주 국악실내 악단 ‘율’이 음악과 연주를 선사해 깊어가는 여름밤의 축제분위기를 달궜다.

종걸 스님은 “근대문화유산을 이용한 야행 프로그램 중에서 일제강점기 아픈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고, 포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사음악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멋진 봉축행사, 광주불교 자긍심”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광주불교연합회 봉축기획단장 시각 스님

서울 봉축행사인 연등회는 오랜 기간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다. 따라서 지역 봉축행사의 화두는 이미 검증된 연등회의 다양한 참여행사를 지역화하고,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마당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광주지역 봉축행사는 최근 3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광주지역 봉축행사 기획을 맡고 있는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봉축기획단장 시각 스님(만덕사 주지 · 사진)은 그 중심에 있다.

“광주불교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 · 재가 모두가 인정하는 기획단 구성과 안정적 운영을 통해 화합과 변화 발전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째 봉축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시각 스님은 봉축행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르다. 하지만 늘 한결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봉축행사를 통해 광주지역 불교의 포교뿐만 아니라 불교의 전반적인 활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광주 봉축기획단은 매년 10월 발족해 그해 12월까지 다음해 봉축행사 기획을 담당한다. 단장을 비롯해 부단장 2인, 광주불교연합회 총무부장스님 등 출가자 4인이 참여한다. 재가자들은 광주지역 불교NGO단체, 종립학교, 불교언론사, 사회복지단체, 사찰 종무실장 등 불교활동가들도 동참한다. 모두 10~20여 년간 광주불교계에서 활동한 베테랑들이다.



이들의 활동은 곧 행사의 생동감으로 전해진다. 광주 봉축행사가 지역불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행사준비에는 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시각 스님에게 이 질문은 우문(愚問)이었다.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자긍심을 가질 뿐입니다. 최초 발족해서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 스님들이 기획안을 맡기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이죠. 더불어 기획단에 참여한 재가불자들이 청년시절부터 활동하면서 광주불교의 근간을 알고 있는 이들이라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광주불교를 밝게 합니다.”

시각 스님 역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와 태고종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기획통이다.

광주는 올해 봉축행사 사진전을 시작으로 내년 행사준비에 들어갔다. 연희단 강습회, 전통등 만들기 등을 준비한다. 다만 늘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스님에게도 고민은 있다.

“기획단 3기까지 원만회향 했습니다. 하지만 4기에 들어 추진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진력을 계속 낼 수 있는가가 고민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젊은 활동가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각 스님은 광주지역 스님들의 역할을 주목한다.

“결국 스님들이 해야 할 것은 합리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전문적 지식과 관심을 갖는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한다는 얘기다. 출 · 재가를 떠나 불교의 모든 식구들의 참여와 열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스님은 답했다.

“기존 불자들 외에 새로운 활력을 갖는 젊은 신도와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봉축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문화행사를 시민들에게 보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은 광주불교계가 내년 봉축행사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